

नव नव

५ २ ४

श्रीमद्भगवद्गीता

朝鮮語文雜誌

한글

創刊號

昭和二年七月二十五日發行(每月一回發行)

創刊辭	(一)
訓民正音原本	(二)
訓民正音刊行에際하여	(三)
鄭序	(八)
原本(銅版)	(九)
世宗大王과訓民正音	(四)
正音以前의朝鮮글	(四)
한글기원	(五)
우리한글의世界文字上地位	(五)
聲音學上으로본正音	(五)
한글과周時經先生	(六)

◎社友募集

本社에서는 다음과 같은 規定으로 社友를募
集하오니 많이 愛願하여 주십시오.

◎社友規約

- 一、朝鮮語文研究에 뜻이 개인이는 누구든
지 다本社社友가 될수 있습니다.
- 一、本社友에게는 社友證을 드립니다.
- 一、本社友는 年捐金壹圓을 내셔야 합니다.
- 一、本社友에게는 다음과 같은 特典을 드립
니다.

- 一、本誌를 無料로 提供합니다.
- 一、本社에서 主催하는 講習會나 講演會
에 無料로 聽講할수 있습니다.
- 一、本社友가 多數히있는 地方에서 社
友中으로부터 講習會의 請求가있으
면 本社로부터 出張講義합니다.
- 一、本社及新少年社에서 發行하는 圖書
를 實價로 提供합니다.
- 一、年捐金을 滯納할時는 本社友의 權利를 喪
失합니다.

한글 社白

첨내는 말

『한글』이 나왔다. 『한글』이 나왔다. 訓民正音의 아들로 나왔다. 二千三百萬民衆
의 동부도 나왔다. 무엇하러 나왔느냐 조선말이란 曠野의 荒蕪를 開拓하며 조선
글(한글)이란 寶器의 木은 木을 벗기며 朝鮮文學의 正路가 되며 朝鮮文化의 原動
力이 되며 조선이란 큰집의 丁전들 뒤으며 주초를 농기爲하여 丙寅이 됨해 丁卯年
劈頭に 나왔다.

조선말이란 靈物이 조선겨레의 입에서 음죽이기 비릇은지가 아주 줄잡아도 半
萬年以上이오 한글(正音)이란 寶器가 조선사람의 손에서 나온지가 四百餘年에
다만 自然에 放任되며 塵土에 埋沒되어 아주일즉이 그無限한 靈能을 한곳 들내
어보지 못하고 한갓 푸대접과 等棄의 알에서 活機를 헛되게 음치고 지나왔다
달아 조선말이 엷어지며 조선힘이 여려지며 조선문화가 쇠잔해졌다.

昨年の丙寅이 世宗大王의 訓民正音頒布後 第八回甲으로 우리겨레의 말을 譯어깨
우쳐 일으킴이 深切하였다. 「가가날」의 소리가 三千里江山의 골골샅샅이 波及하였
다. 사람사람의 마음은 그뿌리로부터 動하기始作하였다. 그리하여 지나간허물을 뒤우

本誌 一個月分 十錢
定價 六個月分 五十五錢
一箇年分 壹圓

昭和二年二月八日發行
昭和二年七月二十日印刷
昭和二年七月二十五日再版發行

(臨時定價二十錢)

京城府蓋會洞二十三番地

編輯兼 發行人 申 明 均

全

印刷人 李 炳 華

全

發行所 한글社

全

印刷及 發賣所

新少年社

振替京城二二八二二番

치며 앞에 오는 새바람을 품고서 새 노력을 하라는 마음이 널리 통함을 본다. 이
重한 朝鮮民族의 文化的衝動的 養育機關으로 우리「한글」이 난 것이다。

갈난아이인「한글」은 힘이적으나 그할일인즉 크도다. 아득한속에서 죽은옛말을
찾으며 어질어운가온대에서 바른學理法則을 찾으며 밝은 世界語文을 參酌하며
안으로 우리말과글을 바로잡아 統一된 標準語의查定을 꾀하며 完全한 文法の成
立을 버리며 훌륭한 字典의實現을 뜻하니 그할일이 어찌 끔직하지안이한가。

朝鮮文化樹의 枝葉은 科學、宗教、藝術、政治、經濟、道德等 여러가지가 있겠지
마는 그根本을 依托할土臺는 말과글이다. 이말과글을 잘갈고 닦아서 朝鮮文化樹
의 永遠한 發達의原動力이 되고자하니 그理想이 어찌 놀남지안이한가。

그러나「한글」은 不幸히 가난한집에 태어나서 物質的힘이 棼棼하지 못하
랴 그前道가 그리平坦하지 못할줄을 미리 짐작하지 안이함은안이다. 그렇지마
는 우리同人은 精神的 肉體的 兩方面의 꾸준한努力을 犧牲하기로 盟約하였으며
더구나 새朝鮮文化樹를 栽培하기에 各方面으로 努力하는 온朝鮮 男女老少가 모
다 우리어린아이「한글」의 愛護者이심을 믿는故로 이아이의發育은 흔흔하며 將來
는 遼遠하야 온갖빛길과 온갖바람이 한거름한걸음씩 일우어저갈줄을 굳이믿고
疑心금지안이하노라。

世宗御製訓民正音原本

訓民正音創刊에際하여

本社에서는 本誌創刊을 機會하여 訓民正音原版全部를 寫眞版으로 製作하여 本誌에 실어가지고 讀者여러분과 한가지 일어보는것이 매우 意味가 있는일이겠기로 그의原本을 廣求한結果 朴勝彬氏所藏인 單本の訓民正音木刻版과 光文會의所藏인 月印千江曲卷首에合付된 역시木刻版과 魚允迪氏의所藏인 日本宮內省의藏本の抄本三種을 얻어보게되었다.

이三種을 對照한結果 朴氏本과 魚氏本이 同一하고 또이兩本은 光文會本과 第一葉 表裏兩面만이 다르고 此外에는 三本이 全部가 同一한것을 알게되었다. 그러면 이三本이 字体나配字數가 모두大同한中에서 朴氏本이 單本인것과 도는 字體같은것이 楷正함을보아서 眞本에갓가운듯하며 光文會本은 第六葉裏面第二行의 發人字音이 성으로誤印된것을보면 原本의翻刻임을 얼른알수있다. 그런데 朴氏本은 第一葉이 脫落되어서 毛筆로抄寫한것인데다가 거기에서 原文의句讀면것과 註釋의疎略함과 發音과語法의不精함이 他葉에比하여 不一한점이 많다. 이로말미암아 吾人의推測으로는 그것이 原本의抄寫함이안이오 後人누가 任意로修補한것인듯하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日本宮城內省藏本도 역시第一葉이 抄出한 것이안인가 아즉 質正하여보지못하였음은 尙未洽한 일이다。

朴氏本도 第一葉만은 眞本안인 것이 分明한즉 吾人은 또 다시 光文會本의 第一葉을 考察하지안을수없다。 그런데 거기도 冒頭에 世宗御製이란 大王의 廟號가 쓰인 것과 또는 古本의 第一葉 처음 四行만이 他行에 比하여 配字數가 特別이 많은 것을 보고 새로 疑心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吟味한 結果 이 月印千江曲이란 冊은 世祖四年에 刊行한 것이므로 父王의 製述임을 表示하기爲하여 世宗御製의 四字와 이에 關한 註釋을 添入한 것이 줄알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刊行할 때에 새로 版을 만들지 않고 舊版을 翻刻하면서 도 原形을 保存하기爲하여 처음 四行안이다 配字를 密接히 하여서 이를 插入한 것이 줄알았다。 그것을 除去하고 본즉 配字數가 他葉他行과 皆同一하여 首尾整然함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吾人은 이 모든 事情을 綜合하여 가지고 第一葉만은 光文會本에 依하되 (第二葉도 朴氏本이 너무 흐리므로 光文會本에 依함) 世宗御製의 四字와 이에 關한 註釋을 除去하고 他行의 配字數와 同一하게 一行小字十八字이던 것을 十六字로 複寫하여 寫眞版을 만들었다。 그리하자니 自然字體같은 것은 原本보다 多小의 體임이 없을수 없으나 舊面目으로 還元된 原本인 것만은 插疑할餘地가 없다。 그리고 吾人은 疑心을 疑心대로 傳하는 古人之 本을 받아 朴氏本의 第一葉과 光文會本의 第一葉

四行도 原形을 그대로박어 讀者여러분의 參考를 삼고자한다。

수番 이 考據에 對하여는 우리 同人 權惠奎氏의 用心이 많음을 부는여말씀하며 여러本中에 他本을 珍藏하신이가 계시거든 그를 公開하여주시면 그런 多幸이 없을 줄안다。

한글의周時經先生

申 明 均

한글—正音은 世宗大王이라는 尊貴한産婆의 손으로 삼을갈나가지고 가져다 데쳐
 울음을 울게 되었다. 그의 出生이 榮光스러웠던 것만큼 그의 成長이 미상을寵愛와 호강에만
 싸여 있었다. 이것은 한글씨가 잘 나서 그리하였기 보다는 産婆이자 乳母이면 世宗
 大王의 知己를 잘 만났기 때문이었다. 한글로는 없어서 안이 될 世宗大王이 이世上을
 한번 더나자 한글의 신세는 개밥의 도로리로 볼 일대가 없이 一時의榮華는 苦痛으로 살아
 지고 暗澹한 굴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 功은 塔이 문어지라고 한글의 앞길에는 多시 曙光이
 빛이 개되었다. 그것은 한글이 이世上에서 온갖 구박을 다 받아 가며 必된 실패를 맞은
 지 四百二十一年사재되던 丙子十一月七日이다. 이 불쌍한 한글과 運命을 같이 하기爲하
 야 黃海道鳳山에서 呱呱의 聲을 낸 이는 古朝鮮語文의 第二의 恩人인 周時經先生이
 다.

先生은 이不運의 한글과 知己가 될 運命을 타고난 이만큼 역시 運命이 기구하여 正音의
 이때부터 어딘 사람이 差우지 못하여 세 번씩이나 氣絶이 되었다고 한다. 三十九年이라
 는 先生의 少年生涯는 혹은 書生으로 印刷職工으로 航海家의 徒弟로 新聞記者로 一時
 는 政治運動으로 生涯에 波瀾과 屈曲이 많아서 한번도 平路를 걸이 보지 못하고 역시 刀水劍

山의 險路로만 一生을 終始하고 말았다.

元來先生의 性格은 溫恭着實할 뿐만 아니라 남이 다 가지지 못한 研究慾과 奮闘의 精神은 天
 然으로 性格에 胚胎가 되어 八歲人적에 自己洞里로 덜렁峯으로 하늘을 만지려 음아갈
 때에 남다른 先生의 性格은 이미 여겨서 峯이 르게 되었다 知鑑이 있는 눈으로 意味
 가 있게 보았다면 필성부든 平성귀는 曷人으로부터 알아 본다고 將來入성이 있다고 하였
 겠지마는 그 저이 사로 보았다면 선머슴 아이들의 心상한 착난 밖에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러나 다행하게도 先生의 研究慾과 奮闘의 精神은 一한글研究에 옮겨졌다.

十八歲入적에 漢文을 배호다가 音으로 읽고 詩로 읽는 趣味를 하여 가며 時間과
 努力을 虛費하는 이 보다는 元來自己 말과 글을 배웠으면 意味도 明白히 알뿐더러 오
 히려 事半功倍가 될 것을 이런 無意味한 일을 왜 하노하고 衝動을 받은 先生의 한글研究의
 動機는 先生의 性格인 研究慾과 奮闘의 精神에 물을 집었다. 불이 붙은 先生의 한글研
 究는 꺼질 줄을 모르고 燒燃하였다. 己往學部에 國文研究所가 成立되자 先生은 거기의
 委員이 되었고 혹은 同志로 더불어 研究所와 講習所를 設置하면 先生은 반드시 그 指導의
 中樞가 되었다. 時代의 進展을 말아서 市內各中等學校에 朝鮮語科程을 두게 하니 先生은
 역시 그것을 專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先生은 世波의 戲弄을 받는 가운데서나 實際
 運動에 몸을 전신後에나 造次顛沛의 間이라도 一한글研究의 生각은 쉬어본적은 없었다.

世宗大王 사랑 밑에서 寵愛를 오로지 하여 가면서 一時의 호강도 하였고 五世紀라는 긴
 歲月에 눈물겨운 鍛鍊을 받은 것이 도 능아 덕은 말모양으로 言語로나 文字로나 何等의 訓

鍊을받지못하였다가 周時經先生이라는 恩人을 만나서 비로소 科學的體系를 얻게 되고 學問이라는 班列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글自身만을爲하여 다행이 아닌 오 朝鮮의 文化 또는 世界文化의 큰다행인 줄 안다.

先生은 한글 연구에 一生의 心血을 기울이셨으나 한글이 完全한 發育을 일우어 제구실을 치를 만치 철나는 것을 못보시고 多恨多淚한 惝惝 一生을 맞으셨으나 先生의 心血이 고여 있는 저 朝鮮語辭典의 原稿와 光文會에서 發行한 訓蒙字會, 新字典과 또는 先生의 遺著인 朝鮮語文法, 말의 소리 같은 것으로 일우어 놓으신 學理上 原則과 또는 생각으로 뒤아서 말기신 研究의 刺戟은 한글과 한가지로 그 恩澤과 光輝가 永遠할 것이다.

編輯室에서

◇本誌는 朝鮮言文에 關한 科學的研究과 實際問題를 解決하기爲하여 出生된 朝鮮唯一의 朝鮮言文研究雜誌을 시다.

◇本誌는 理論보다도 實際的 訓練을 尊重하여야 하기에 本誌에 나타나 朝鮮文綴字는 그 全部를 整理한 綴字法을 使用하여 學理를 研究하는 一方으로 整理된 綴字文의 讀書力까지 向進되시도록 擘하였읍니다. 그리고 漢字音에 對하여는 그 全部를 表音式을 쓰기로 하였읍니다.

◇整理된 綴字法을 施行하자면 여기에 關한 活字全部를 新調하여야 합니다. 그리자면 그 費用이 莫大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犧牲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普及되기를 생각하는 까닭에 定價는 特別히 每部에 十錢으로 하고 每號에 四六判三十二頁씩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創刊號만은 臨時定價 二十錢으로 하였읍니다.

◇本誌에는 特別히 讀者여러분 研究에 萬一이라도 도움이 있을 가하여 研究에 對한 質疑欄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解答은 特別한 것이 안이면 따로 따로이 解答을 안이 하고 함께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本誌의 發行은 每月十日이 넘기 原稿는 要領만을 簡單하게 記錄하여 每月二十日內로 本社에 到着하게 보내주시고 따로이 回答이 必要한 때에는 返信料을 보내주시시오.

◇우익同人은 權憲奎, 李秉岐, 崔鏡培, 鄧烈模, 申明均 諸人이 읊시다.

來年度入學試驗은 只今부의準備하시오

◎受驗準備書는 朝鮮서적을잇는 宏壯한冊!



四六版 六百頁
實價壹圓參拾錢
送料十六錢

朝鮮全國內師範學校、高等普通學校、鐵道、農、商、工業學校의 國
語算術入學試驗問題를모조리모아서 一々이解答을부치고地理、歷
史、理科、朝鮮語問題를附錄으로하십니다
이책을 한번읽으면 반듯이 入學하실수잇습니다

發賣所 京城府笠井町二五八番地 朝陽書館

振替京城二二七八番